

##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의 출생의례 및 아기행사에 대한 비교연구

A Cross-Generational Comparison of Traditional Rituals Parenting to  
Childbirth and Early Childhood

민 하 영\*  
Min, Ha Yeoung  
유 안 진\*\*  
Yoo, An Jin

### Abstract

In this comparison of observation of traditional childbirth and early childhood rituals, 118 young mothers whose children were 2- to 2.5- years-old and their mothers or mothers-in-law responded to questionnaires. Results showed that most grandmothers, when they were young mothers, observed more of the traditional rituals than the young mothers in sample. That is, more grandmothers hung the *Kum jul*(tabb rope) and the baby's grandparents named the baby. The young mothers of this sample were more likely to employ a professional name giver, they telephoned their relatives to inform them of the birth, gave a banquet, took more souvenir of picture, and were given more monetary and other gifts at their's first birthday

**Key Words** : 출생의례(childbirth rituals), 아기행사(baby celebration), 세대간 비교(cross-generational comparison)

---

※ 접수 2003년 2월 28일, 채택 2003년 4월 2일

\* 교신저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아동학과 전임강사, E-mail : mhycd@hanmail.net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 I. 서론

아동양육은 아동을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화시키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아동학, 교육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독립적 또는 학제적으로 오래도록 관심 받아 온 연구 주제다. 그러나 아동양육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의 행동 및 태도 또는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양육 행동이 표출되는 의례나 의식(rituals)에 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2세를 전후해 본격적인 사회화가 양육행동을 통해 이루어짐을 고려해 볼 때(Fagot & Kavanaugh, 1993), 세상에 갓 태어난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제공되는 양육 의례는 양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행동 특성 및 가치를 결집하여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Weisner(1996) 역시 영아기에 제공되는 문화적 의식(의례)은 아동이 자신의 발달궤적(developmental pathway)을 형성해 나갈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완정, 현은강, 1999). 이와 같이 아동양육에 관한 의식은 아동의 사회화 과정의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양육행동만큼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제공되는 양육관련 의식(ritual)은 전통적으로 출생의례나 아기행사로 대표될 수 있다. 출생의례란 출생에 따른 의례를 의미하며, 아기행사란 삼칠, 백일, 또는 똥 잔치와 같은 아기를 위한 축하 행사를 의미한다(유안진, 1986). 이러한 출생의례나 아기행사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가치 또는 신념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적 변화와 함께 변모된다는 점에서 독특한 시대문화적 사회특성을 대표하는 풍속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과거 전통사회의 농

업 생산경제와 유교적 사상을 근간으로 생성, 발전한 전통적인 출생의례나 아기행사는 산업 생산경제와 민주주의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문화적 특성 속에서 상당 부분 변화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출생의례나 아기행사는 유안진(1986, 1990)이 1975년부터 1979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 1988년까지 당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출산 및 육아 풍속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었을 뿐 그 동안 아동 관련 학문 분야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는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즉 유안진의 연구에서 확인된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가 현대 사회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규명해 줄 객관적 자료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에 관한 자료를 준거자료로 하여 현재 어머니 세대의 출생의례와 아기행사의 실태를 할머니 세대의 것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할머니 세대는 유안진(1986, 1990)의 연구 대상이었던 세대 즉 전통적 출생의례와 아기행사로 양육된 세대에 의해 양육된 세대로, 현재 어머니 세대를 양육한 세대이다. 따라서 어머니 세대의 출생의례와 아기행사를 전통적 출생의례와 아기행사를 준거로 하여 할머니 세대와 비교 분석할 경우,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의 각 세대간 특성 뿐 아니라 그 전승 및 변모과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출산의례와 아기행사는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1> 출산소식알림, 산후조리 및 신생아 이름짓기의 출생의례는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2> 첫똥잔치 아기행사는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를 통한 이 연구의 결과는 현대사회

의 출생의례나 아기행사에 관한 정보 뿐 아니라, 전통적인 출생의례나 아기행사에 관한 시대 문화적 동질성과 차별성을 일련의 연속선상에서 발견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출생의례와 아기행사의 패적(pathway)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간 비교문화연구 및 한국적 문화소개와 홍보시 소중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문헌고찰 :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로는 금줄, 산후조리, 신생아 이름짓기 그리고 첫똥 잔치 등이 포함된다.

### 1. 금줄

금(禁)줄이란 부정을 꺼리어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대문이나 출입문에 걸어 맨 줄로 인줄, 삼줄 또는 금구라고도 한다(국어대사전, 1994). 금줄은 생명의 양식인 벼의 줄기인 벼짚을 벽사(辟邪)의 방위인 왼쪽으로 꼬아 만들어서 삼칠일 즉 27일 동안 주로 대문에 걸어서 새로운 가족의 출산과 외인 출입의 자제 표시로 사용하였다(윤재훈, 2000). 남아를 출산하면 벽사의 색과 냄새 및 맛이 나는 붉은 색 고추를, 여아를 출산하면 벽사의 상징인 침엽 모양의 청솔가지를 최소수이자 완전수인 3개씩 사용하여 제독용인 숯 3개와 함께 섞바꾸어 꽂아 만들었다. 남아용의 붉은 고추는 남자를 상징하는 동시에 노란 고추씨를 통해 부귀를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여아용의 청솔가지는 벽사와 더불어 정절을 기원하는 것이었다.

금줄은 의학이 발달되지 못한 전통사회에서

허약한 산모와 아기를 질병감염 예방, 휴식과 안정도모 등 예방의학적 목적을 겸하여 사용되었다(유안진, 1986).

### 2. 산후조리 : 쌀밥과 미역국

출산한 산모는 흰 쌀밥과 미역국을 산식(産食)으로 먹었다. 쌀밥과 미역국은 하루에 4-6회씩 삼칠일 동안 먹지만, 산모가 허약할 경우 칠칠일까지 먹었다. 가정형편과 산모의 건강형편에 따라 육류와 함께 보약도 산식과 함께 복용하기도 했다. 미역은 지혈과 청혈(淸血)에 좋으며, 산모의 신진대사를 돕고 소화를 촉진시켜 산모의 건강회복 및 수유를 위한 유즙 분비를 돕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유안진, 1986).

### 3. 신생아 이름 짓기

전통사회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정식 이름을 지어 부르기 전에 아명(兒名)이라 하여 막 부르는 이름을 지어 불렀다. 아명은 애칭의 의미와 아기의 장수(長壽)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여아의 경우 남동생을

보라는 의미의 소원을 담은 아명을 짓기도 했다. 아기의 장수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아명으로는 개똥이, 쇠똥이 등 천한 뜻을 지닌 이름이거나 바우(바위), 범이(호랑이), 도치(도끼)와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진 이름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아명은 아이의 장수를 방해하는 잡귀에게 아이가 천하고 더럽다는 것을 알려주거나, 또는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잡귀가 아기에게 근접 못하도록 하는 힘이 있다고 여겨졌다. 아명은 아기를 노리는 잡귀나 병마를 속이거나 겁주어서 아기를 보호하려는 뜻에서 지어졌다. 아기의 아명은 남아의 경우 관명(冠名), 즉 정식 이름이 지어지기 전 까지 사용되었는데 아기의 사망률이 높았던 전통사회에서는 아기가 앓거나 다쳤을 때는 아기의 장수장명(長壽長命)의 소원을 담은 아명을 계속 부르기도 했다(유안진, 1986, 1990; 윤재훈, 2000).

아이의 정식 이름인 관명은 동조(同組)개념을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집안의 항렬자(行列字)를 따라 짓는데 아이의 사주(四柱)를 고려해 짓기도 했다. 이름은 영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과 생활의 성패를 예측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다. 성공, 실패, 건강, 병약, 장수, 단명 등의 모든 행복과 불행을 초래하는 영력이 이름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였다(김찬동, 2001; 엄윤문, 1994; 정보국, 1998; 홍정, 1998). 이름에는 사주팔자를 개운(改運)하려는 의지도 담겨 있기 때문에 사주 뿐 아니라 수리, 음양오행, 자획 등을 고려했다. 따라서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요구

되었다.

#### 4. 첫똥

첫똥이란 아기가 출생 후 1년 되어 맞는 생일 날로 쉬일(晝日), 주일(周日), 주년(周年)이라고도 한다. 다른 생일과 달리 아기에게 똥옷을 입히고 똥상 앞에 앉혀서 똥상 잡히는 등의 첫 아기행사였다.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전통사회에서는 아기의 첫똥 맞이는 여러 위험 고비를 넘기고 건강하게 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차 가족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예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첫똥에는 아기의 부귀장수를 기원하는 똥상을 차렸다.

한편 첫똥에는 똥잡이의 재미를 즐겼는데 백설기, 수수떡, 팥떡, 실꾸러미, 책, 붓, 돈, 쌀, 활 등을 똥상에 차려서 아기가 먼저 선택하는 것으로서 미래 아기의 직업 선택과 부귀장수를 점쳤다. 예컨대 아기가 실을 먼저 잡으면 장수하고, 돈을 먼저 잡으면 부자로 살고, 책이나 붓을 집으면 공부를 잘하고, 활을 잡으면 군인이 된다고 생각했다(유안진, 1994; 최운식, 김명자, 이정재, 장장식, 홍태완, 2002; 한국민속학회, 1999).

첫똥 음식은 잔치에 온 친척이나 이웃과 나누어 먹었는데, 음식을 받은 이웃의 경우 돈이나 쌀 또는 실과 같은 물품을 음식 그릇에 담아 보내어 답례를 했다. 그리고 첫똥 잔치에 온 가까운 친척들은 아기의 수명장수와 부귀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은수저, 의복, 밥그릇, 장난감, 반지 등을 선물했다.

1) 첫똥에는 똥상을 차리고 똥상 잡히기를 하고 음식을 이웃에 돌리는 등 잔치를 벌이지만 두똥, 세똥에는 간단한 별식과 쌀밥, 미역국을 차려 놓고 가족끼리 아이의 장수와 복록을 기원하였다. 이는 첫똥을 다른 생일과 달리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2세에서 2세 반까지의 첫 자녀를 둔 대구시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어머니 118명과 그의 친정 및 시어머니 118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선정에 있어 첫 자녀의 연령을 2세에서 2세 반까지로 한정된 것은 첫째 아기행사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생후 12개월 이상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첫 자녀의 나이를 최대 2세 반까지로 확장하였다. 한편 연구대상 표집은 제보자 모집 표집(snowball sampling) 또는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 등 비확률 표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편 연구대상자를 대구시와 그 인접 도시에서 선정한 것은 이 지역이 도시적 특성과 전통 문화적 특징이 함께 조화된 지역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할머니 세대가 부모됨을 경험했던 1960년대는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되기 시작한 시기로 근대화가 전국적으로 도모된 시기였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보편적이었다(농촌사회 연구소, 1965; 임희섭, 1980).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할머니 세대의 양육 의식(ritual)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전통 문화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상당 보존되면서 동시에 도시적 특성이 함께 조화된 지역이 연구목적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어머니 세대 연령은 20대가 19.5%(23), 30대가 80.5%(95) 이었다. 할머니 세대 연령은 50대가 49.2%(58), 60대가 41.5%(49), 및 70대 이상

이 9.3%(11)였다. 어머니 세대는 평균 1966년에서 1967년 사이에 출생하여 평균 1992년에 결혼하였으며, 평균 1993년에서 1994년 사이에 첫 아이를 낳았다. 할머니 세대는 평균 1938년에서 1939년 사이에 출생하여 평균 1960년에 결혼하였으며, 평균 1961년에서 1962년 사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였다.

어머니 세대는 고졸 이하 38.1%(45), 전문대졸 16.9%(20), 대학졸 28.0%(33), 그리고 대학원 이상 16.9%(20)의 학력자였다. 할머니 세대는 무학 21.2%(25), 초등학교졸 30.5%(36), 중학교졸 21.2%(25), 고졸 18.6%(22), 및 전문대졸 이상 8.4%(10)의 학력자였다.

#### 3. 측정도구

출생의례 및 아기행사와 관련된 고전문헌 및 고문헌에 대한 해석자료 그리고 선행연구(김용덕, 1996; 김용숙, 1993; 유안진, 1983, 1986, 1990)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출산소식 알림(2문항), 산후조리(3문항), 신생아 이름짓기(2문항)를 포함시킨 출생의례 문항과 첫돌과 관련된 아기행사 문항(9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의 내용 타당도는 4인의 아동학 전공자 2/3 이상의 합의를 통해 검증받았으며, 각 문항은 Yes/No 응답의 폐쇄형 질문과 선답형으로 구성하였다. 출산소식 알림과 관련한 Yes/No식 폐쇄형 문항의 경우, “첫 아이를 낳고 집 대문에 금줄을 걸어 놓았나?”에 Yes/No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신생아의 이름 짓기와 관련한 선답형 문항의 경우, “첫 아이의 이름은 누가 지었는가?”에 대해 남편과 나(산모 자신), 아기의 조부모, 성직자, 작명가, 기타 중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은 훈련된 아동학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자료 조사원이 1997년 5월에서 9월에 걸쳐, 첫 자녀의 연령이 2세 또는 2세 반까지인 대구시내 및 인접지역 거주 어머니 세대를 잠정 표집하였다. 그리고 그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에게 설문조사의 가능여부를 사전 전화 연락으로 알아본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자료수집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자료 조사원은 어머니 세대 조사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된 설문지는 우송용 봉투에 넣어 우송해 주도록 요청했다. 할머

니 세대용 질문지는 자료 조사원이 어머니 세대의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내용을 일일이 읽어준 후, 표기하도록 하였다.

####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Window형 SPSS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은 Crosstabs를 이용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출산의례에 관한 세대간 차이

출산의례 중 출산 직후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로 출산소식을 알린 경우, 두 세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 세대의 경우 출산 직후 91.5%가 전화로 출산소식을 알렸으나, 할머니 세대는 27.1%만이 출산소식을 전화로 알렸다. 이는 경제적 성장에 따른 전화보급률의 세대간 차이로도 설명될 수 있다. 한국통신의 전기통신 통계연보(1996)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어머니 세대가 아이를 출산한 시기인 1994년부터 1995년 사이의 국내 전화 보급률은 천명당 6.8에서 7.3%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 세대는 상호간 소식전달의 수단으로 전화를 이용하는 것은 보편화된 생활문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 국내 전화 보급률이 천명당 0.2%로(통계청, 1996) 나타났는데, 할머니 세대가 아이를 출산한 시기였던 1961년에서 62년의

경우는 이 보다 더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할머니 세대의 경우 전화를 이용해 출산소식을 알리는 것이 보편화되지 못했다고 해석된다.

“출산을 알리기 위해 집 때문에 금줄을 쳤는가?”에 대한 응답 역시 세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 세대의 경우 금줄 문화는 거의 발견(5%)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할머니 세대는 43%가 금줄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출산을 알리는 동시에 예방의학적 기능을 갖는 금줄이(유안진, 1990) 의료서비스가 발달하고 전화 보급률이 상당히 증가한 어머니 세대에서는 더 이상 효용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어머니 세대가 첫 아이를 출산한 평균 1993년의 의사수는 1970년 의사수에 비해 3.5배 증가(1996, 통계청)했으며, 1989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한국보건사회연구소, 1997)되면서, 현재 어머니 세대는

할머니 세대에 비해 손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의료 서비스의 증가는 적극적으로 산모와 출산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므로써, 소극적 차원의 예방의학 적 기능을 하던 금줄의 효용 가치를 상실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할머니 세대의 경우 첫 부모됨을 경험한 시기가, 1970년대 보다 의료 환경 및 전화 보급이 더 낙후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소극적이거나 전래되어진 풍속대로 금줄을 통해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고 출산 소식을 알렸다고 해석된다.

산후조리와 관련하여 산후조리를 도운 사람은 두 세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 세대의 경우 시어머니(32.8%) 보다 친정 어머니(56%)의 도움이 더 많았지만, 할머니 세대의 경우 친정 어머니(37.3%)보다 시어머니(41.9%)의 도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발전하면서, 시어머니 보다 친정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신기영, 1991)과 일치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산후조리의 최근 현상으로 산후조리원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추후연구에서 산후조리원의 세대 변화에 관심 갖기를 제안해 본다.

출산 후 외인 출입 제한(外人 出入 制限)에서는,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 세대(30%)가 할머니 세대(15%)보다 출산 후 외인 출입에 더 허용적이다. 바꾸어 말하면 할머니 세대의 경우 85%정도가 출산 후 외인출입을 금지하는 풍속을 지켰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어머니 세대는 할머니 세대보다 높은 수준의 과학적 의료 서비스를 폭 넓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기와 산모의 건강 보호를 위한 외인 출입 제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한을 두는 경

우 양 세대 모두 초칠일 즉, 7일까지가 많았으며, 대체로 전통적 외인 출입 금지 기간인 삼칠(三七)일까지 외인 출입을 자제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출산의례에 관한 세대간 차이

내 용	구 분	어머니 세 대	할머니 세 대	Pearson $\chi^2$	
출산 소식 알림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함	예	108(91.5)	32(27.1)	101.42***
		아니오	10(8.5)	86(72.9)	
	금줄	예	6(5.1)	51(43.2)	46.84***
		아니오	112(94.9)	67(56.8)	
산후 조리 도움 사람	남편	11(9.5)	11(9.3)	17.42***	
	친정어머니	65(56.0)	44(37.3)		
	시어머니	38(32.8)	45(41.9)		
	기타	2(1.7)	18(15.3)		
산후 조리 음식	미역국	102(88.7)	109(93.2)	12.82**	
	몸을 회복 시키는 음식	10(8.7)	0(0)		
	평상시 음식	3(2.6)	8(6.9)		
출산 후 외인 출입 제한	전혀 제한 두지 않음	35(29.7)	18(15.3)	8.96**	
	7일 미만	35(43.0)	51(43.2)		
	8-21일	40(33.9)	38(32.2)		
	22일 이상	8(6.8)	11(9.3)		
신생아 이름 짓기	남편과 나	29(24.6)	38(32.2)	23.04***	
	아기의 조부모	33(28.0)	57(48.3)		
	작명 주체	성직자	7(5.9)		1(0.8)
	작명가	42(35.6)	17(14.4)		
아명 애칭	예	15(13.0)	20(17.2)	.79(n.s)	
	아니오	100(87.0)	96(82.8)		

\*\*p<.01 \*\*\*p<.001

신생아 이름 짓기와 관련하여 작명(作名)은 두 세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 세대는 출산아의 작명을 작명가(35.6%)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기의 조부모(28%), 남편과 나 즉 산모 자신(24.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할머니 세대는 아기의 조부모(48.3%)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남편과 산모자신(32.2%), 작명가(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율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어머니 세대는 할머니 세대처럼 남편과 산모자신 보다 아기의 조부모가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세대의 가족구조가 대부분 부부중심의 핵가족(통계청, 1996)이지만, 아기는 부부의 자녀이기 이전에 집안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집안의 수장인 아기의 조부모가 손주인 아기의 이름을 짓는데 더 큰 권한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족이 구조상 핵가족일 뿐 기능상 확대가족의 성격을 갖고 있음(민하영, 유안진, 1996)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 세대는 할머니 세대와 달리 작명가를 통해 아기의 이름을 짓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이름 짓기가 아기의 운세를 좌우한다는 속설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아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전통적인 작명 원리 대해 거의 알고 있지 못하다는 복합적인 이유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신생아의 이름 짓기는 아기의 집안내 항렬과 아기의 사주, 수리, 음양오행 등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이루어(정보국, 1998)지는데,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의 경우 아기 이름 짓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함으로 작명가에게 아기의 이름을 의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기의 작명을 작명가에게 의뢰하는 경향이 어머니 세대에

서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이름이 갖는 의미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나 신념을 상당히 수용하고 있는 어머니 세대의 의식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아명이나 애칭 사용의 경우,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학수준의 발달로 영아 사망률이 감소되고 출생신고의 강화로 출생 후 정식 이름이 곧 부여되기 때문에, 아명이나 애칭의 전래 민속적인 효용가치가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더구나 전통적으로 아명이 장수장명(長壽長命)이나 남동생을 소원하며 부르는 상스러운 이름이어서, 소수 자녀를 출산하는 세대로 내려오면서 점차 무시되어져 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2. 첫똥 아기행사에 대한 세대간 차이

첫똥 잔치와 관련된 아기행사의 경우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 모두 똥잔치를 한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당히 많으나, 어머니 세대(91.5%)가 할머니 세대(74.6%)에 비해 똥잔치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시대 변화의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머니 세대가 할머니 세대보다 적은 자녀수와 1인당 높은 GNP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것과 관련있다고 보여진다. 즉 어머니 세대의 경우 1-2명의 아이를 낳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기의 첫똥 축하 잔치를 대부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어머니 세대보다 경제적 여건이 매우 좋지 않았던 할머니 세대에서도 2/3정도나 똥잔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대화가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낙후한 의료 환경 속에서 아이를 출산



하고 양육하는 할머니 세대의 경우 첫뽕을 맞이한다는 것은 아기와 산모의 건강 회복에서 제 2의 위기(유안진, 1990)를 막 넘겼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당히 축하할 만한 것으로 인식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뽕잔치를 한 경우 뽕잡이를 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뽕잔치를 한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는 뽕잡이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가 약 반반씩 나타났으며, 두 세대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뽕잡이 풍속이 전통적 뽕상 풍속임(유안진, 1990)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세대인 현재 만큼 할머니 세대가 부모됨기에 들어섰던 60년대에도 뽕잡이 풍속이 크게 실행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 여건 때문이었다고 추측된다.

“뽕잔치를 한 경우 뽕음식을 이웃에 돌렸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 모두 뽕음식을 이웃에 돌리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으며 그러한 양상에 있어서 두 세대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뽕잔치를 한 경우 뽕사진을 찍었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 대해,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 세대는 88.0%가 뽕사진을 찍었는데 반해, 할머니 세대는 59.1%만이 뽕사진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뽕사진은 할머니 세대와 달리 어머니 세대에서 더욱 발전한 풍속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경제적 여건의 호전, 사진기 이용의 편리함과 사진기 보급률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첫뽕 선물과 관련하여, 돈이나 금붙이 저금통장 등 금전적 선물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 모두 “예”라고 대답한 경우가 “아니오” 라고 대답한 경우보다 많았다. 그러나 할머니 세대 보다 어머니 세대

〈표 2〉 첫뽕 아기행사에 대한 세대간 차이<sup>1)</sup>

내 용 구 분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	Pearson $\chi^2$
첫뽕 행사	뽕잔치함	예 108(91.5)	88(74.6)	12.04***
	아니오	10( 8.5)	30(25.4)	
첫뽕 행사	뽕잡이함	예 59(54.6)	44(50.0)	.42(n.s)
	아니오	49(45.4)	44(50.0)	
첫뽕 행사	뽕음식 이웃돌림	예 79(73.1)	57(64.8)	1.60(n.s)
	아니오	29(26.9)	31(35.2)	
첫뽕 선물	뽕사진찍음	예 95(88.0)	52(59.1)	25.56***
	아니오	13(12.0)	36(40.9)	
첫뽕 선물	돈이나 금붙이 저금통장	예 115(97.5)	73(61.9)	46.13***
	아니오	3( 2.5)	45(38.1)	
첫뽕 선물	장난감 아기용품	예 111(94.1)	55(46.6)	63.69***
	아니오	7( 5.9)	63(53.4)	
첫뽕 선물	실 등 무병 장수기원	예 38(32.2)	47(39.8)	1.49(n.s)
	아니오	80(67.8)	71(60.2)	
첫뽕 선물	책 등 장래 성공기원	예 22(18.6)	11( 9.3)	4.26(n.s)
	아니오	96(81.4)	107(90.7)	
첫뽕 의미	거의 의미 없음	15(12.7)	15(12.7)	4.24(n.s)
	이후 생일 보다 중요	75(63.6)	61(51.7)	
	많이 중요	28(23.7)	42(35.6)	

\*\*\*p<.001

에서 금전적 선물을 받는 경향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난감이나 아기 용품 등 물질적 선물을 받았는가?”와 관련하여 어

2) 뽕잡이, 잔치음식 이웃에 돌림, 사진찍음은 뽕잔치를 한 사례(case) 대해 분석함(어머니 세대 108명, 할머니 세대 88명). 한편 첫뽕 선물의 경우 뽕잔치를 하지 않아도 받기 때문에 뽕잔치를 사례(case)에 한정하지 않고 모두 분석하였음.

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 모두 물질적 선물을 받는 경우가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많았으나, 어머니 세대는 94.1% 물질적 선물을 받은 것에 비해, 할머니 세대의 경우는 46.6%만이 아기 용품과 같은 물질적 선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돈, 금붙이 저금 통장 등 금전적 선물 또는 장난감, 아기 용품 등 물질적 선물이 할머니 세대보다 어머니 세대에서 더욱 보편화되어 나타나는 첫뽕 풍습이라 할 수 있다.

“실 등 무병장수와 관련된 선물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에 유의한 차이 없이 받은 경우는 30-40%였으며, 받지 않은 경우는 70-60%로 나타났다. 한편 “책 등 장래 성공기원과 관련된 선물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세대간 유의한 차이 없이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0-20% 정도였다.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 모두 실처럼 길게 살아

남으라는 의미를 지닌 실 등 무병장수와 관련된 선물, 또는 책 등 장래 성공기원과 관련된 선물이, 전통사회와 달리 보편적 선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축의금, 아기 장난감, 아기 옷 등 아기 용품으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뽕의 의미를 묻는 문항에 대해, 어머니 세대(63.6%+23.7%)와 할머니 세대(51.7%+35.6%) 거의 모두 첫뽕이 그 이후의 생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할머니 세대가 어머니 세대보다 첫뽕이 그 이후의 생일보다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는 첫뽕에 대한 두 세대간 가치관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할머니 세대에서 보고되고 있는 첫뽕 풍습-돌잔치, 이웃에 뽕음식돌림, 뽕사진, 금전적, 물질적 뽕선물 등이 어머니 세대에서 더욱 변화되어 유지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 V. 요약 및 결론

대구시와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생후 2년에서 2년 반된 첫 자녀를 둔 어머니와 그 시어머니 또는 친정어머니를 대상으로 출생의례와 아기행사에 관한 세대간 비교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 요약 및 결론을 유도하였다.

첫째, 출산 알림과 관련하여 어머니 세대의 경우 할머니 세대에 비해 전화 이용이 보편적이지만, 금줄 사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둘째, 산후조리와 관련하여 어머니 세대는 시어머니 보다 친정 어머니에게 더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할머니 세대는 시어머니에게 더 많이 산후조리를 의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후조리 음식과 관련하여 미

역국은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 모두에서 대표적인 산모 산식(産食)으로 나타났다. 출산 후 외인출입에 대해 할머니 세대보다 어머니 세대가 더 허용적이었다. 그러나 두 세대 모두 전통적인 외인 출입기간인 삼칠일 동안 외인에 대한 출입을 제한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삼칠기간은 세대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생아의 이름 짓기와 관련하여 어머니 세대는 작명가, 아기의 조부모, 남편과 산모 자신 순으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할머니 세대는 아기의 조부모, 남편과 산모 자신, 작명가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명의 경우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 모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첫똥 아기행사와 관련하여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 모두 대다수가 첫똥 잔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 세대가 할머니 세대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똥잔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똥잔치 시, 똥잡이를 하는 경우는 두 세대 모두 반정도였으며 그러한 경향에 있어 두 세대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 모두 대부분 똥잔치 시, 똥음식을 이웃에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풍속에 있어 두 세대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똥사진과 관련하여 어머니 세대는 대부분 똥사진을 찍었으나, 할머니 세대는 반정도만 아이의 똥사진을 찍어준 것으로 나타나, 두 세대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첫똥 선물에서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 모두 돈이나 금붙이 등 금전적 선물이나 장난감, 아기용품 등 물질적 선물을 받는 경우가 받지 않은 경우 보다 절대적으로 많았으나, 어머니 세대는 할머니 세대보다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첫똥 선물로 실 등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선물이나 책 등 장래 성공을 기원하는 물건을 받은 경우보다 받지 않는 경우가 두 세대 모두 많았으며, 세대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첫똥의 의미에서,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 모두 첫똥을 이후의 생일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인식에 있어 두 세대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할머니 세대에서 상당히 나타났던 금줄 사용이 어머니 세대에선 사라지고, 할머니 세대에선 드물었던 전화 이용의 출산 소식 알림 등이 어머니 세대의 보편적 행동으로 새롭게 나타났지만 현재 어머니 세대에서 행해지고 있는 출생의례와 아

기행사는 할머니 세대와 더불어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를 외형적인 면에서 상당 부분 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머니 세대의 출생의례와 아기행사는 구조적 측면에서 할머니 세대의 연속선상에서 크게 벗어남 없이 안정적으로 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기행사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사실은 25년에서 30년 주기로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의 아동양육 행동이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Myers와 Williams-Petersen(1991)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와 조선시대의 부모양육 태도의 특성이 같다는 연구결과(백혜리, 1999)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가치의식과 현대적 가치의식이 함께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서로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주장(한국사회학회, 1990)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어머니 세대의 출생의례와 아기행사가 외형상 할머니 세대와 유사성을 보인다 하더라도 내용적 측면에서는 세대간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어머니 세대의 출생의례와 아기행사가 할머니 세대의 것과 내용상 차이를 보이는 것은 두 세대간 첫 부모됨을 경험한 30년 기간 동안 급속히 변모된 한국 사회의 경제적 성장, 의료 서비스의 확대 보급, 가족 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한국인의 의식 변화 등에 기인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오늘날 어머니 세대에서 행해지고 있는 출생의례와 아기행사의 특성을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의 연속선상에서 살펴보고자, 어머니-할머니 세대간 비교 분석을 시도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대구시와 그 인접지역에 한정된 자료

를 기반으로 연구결과 및 결론이 유도되었으므로 이를 우리나라 전 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기억이 현실에 대한 해석을 가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기보고의 회고적 자료인 이 연구는 특히 할머니 세대의 자료에서 정확성이 우려될 수 있다. 셋째, 질적인 접근을 병행하지 못한 채 양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에, 현상에 내재된 다양한 자료

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출생의례와 아기행사에 관한 연구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1990년대 어머니 세대 뿐 아니라 1960년대 할머니 세대의 출생의례와 아기행사의 실태 뿐 아니라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의 세대간 전승 및 변화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참고 문헌

- 김용덕(1996). *한국의 풍속사*. 서울 : 밀알.
- 김용숙(1993). *한국여속사*. 서울 : 민음사.
- 김찬동(2001). *이름이 운명을 바꾼다*. 서울 : 삼한.
- 농촌사회연구회(1965). *농촌사회학*. 서울 : 민조사.
- 민하영, 유안진(1996). 아동이 지각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4), 279-294.
- 백혜리(1999). 현대 부모-자녀 관계와 조선시대 부모-자녀관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2), 75-89.
- 신기영(1991).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윤문(1994). *작명학대전*. 서울 : 동양서적.
- 유안진(1983). 한국전통사회의 특성과 초기 사회화, 한국인의 초기 사회화과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9-116.
- 유안진(1986). *한국의 전통육아방식*.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유안진(199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윤재훈(2000). *민속의 현대적 이해*. 서울 : 세손.
- 이완정, 현은강(1999). 영아, 걸음마기 자녀 양육신념의 세대간 비교 연구-상호의존성과 독립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4), 97-110.
- 이희승 편(1994). *국어대사전*. 서울 : 민중서관.
- 임희섭(1980). 한국사회의 구조변화,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한국사회론*. 서울 : 민음사.
- 정보국(1998). *작명대전*. 서울 : 가림출판사
- 최운식, 김명자, 이정재, 장장식, 홍태한(2002). *한국민속학 개론*. 서울 : 민속원.
- 통계청(1996). *1996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 통계청.
- 한국민속학회(1999). *한국민속의 이해*. 서울 : 문학아카데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서*. 서울 : 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사전연구사(1998). *한국민속대사전*. 서울 : 민중서관.
- 한국사회학회(1990).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서울 : 나남.
- 한국전기통신공사(1996). *전기통신통계연보*. 서울 : 한국전기통신공사.
- 홍정(1998). *이것이 성명학이다*. 서울 : 가교.
- Fagot, B. I. & Kavanagh, K.(1993). Parenting during the second year : Effects of children's age, sex, and attachment classification. *Child Development*, 64, 258-271.
- Myers, B. J. & Willams-Petersen, M. G.(1991). Beliefs and memories about child-rearing across generation : mothers and grandmothers of one-year old infant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67, 111-128.
- Weisner, T. S.(1996). The 5 to 7 transition as an ecocultural project, In A. J. Sameroff & M. M. Haith(Eds.) *Reason and responsibility : The passage through childhood*, Chicago : Chicago Univ. Press.